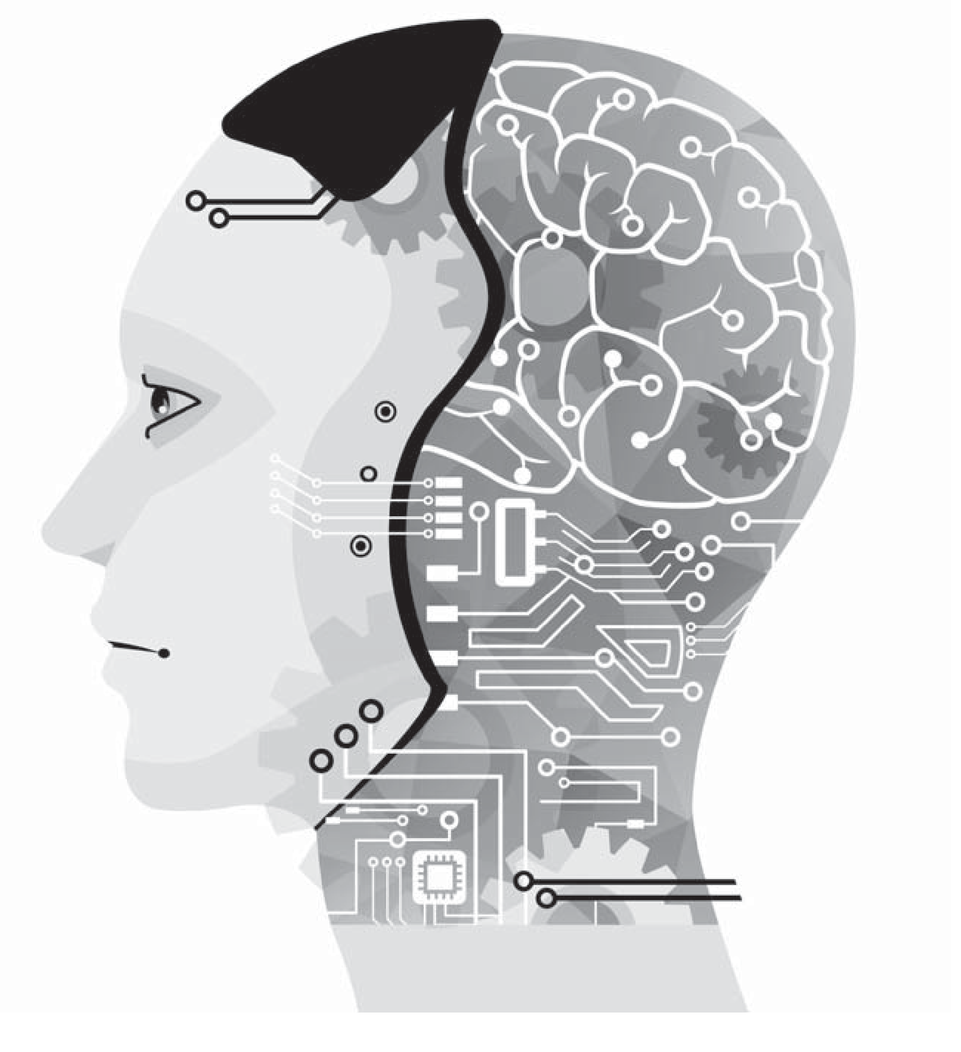
‘AI는 인간을 먹고 자란다’…기술 신화 이면을 해부하다

“가족 사진을 지브리 스타일로 바꿔줘.” 명령어 한 줄이면, 몇 분 만에 깜찍하고 예쁜 내 아이의 개성은 살려주면서도 미야자키 하야오 특유의 따뜻하고 몽환적인 감성이 담긴 그림이 완성된다. “내가 쓴 시를 밴드 콜드 플레이 풍의 노래로 바꿔줘”라고 하면 10분 안에 노래 한 곡이 완성된다.

옥스퍼드 인터넷연구소 등 국제 연구진 공동 집필
보이지 않는 노동, 데이터 추출 구조 실체 파헤쳐
‘추출기계’로서의 AI, 감춰진 구조·권력관계 고발



AI 기술은 이제 단순한 오락을 넘어 검색, 광고, 교육, 가전제품, 자동차 등 우리 일상 곳곳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이 너무나 마법 같아서 우리는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거의 묻지 않는다.

옥스퍼드대학교를 중심으로 10년간 30여 개국의 현장을 누빈 세 명의 연구자가 쓴 책 ‘AI는 인간을 먹고 자란다’(흐름출판·김두완 역)는 보이지 않는 노동과 창의성의 추출 구조를 파헤친다.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구조를 집요하게 따라간다.

책의 저자 마크 그레이엄(옥스퍼드대학교 인터넷연구소), 제임스 멀둔(에섹스대학교), 캘럼 캔트(에섹스대학교)는 수백 명의 노동자, 기술자, 투자자, 성우, 검수자 등을 인터뷰하며 AI 산업의 실체를 추적했다.

이들은 오늘날의 AI를 ‘추출 기계(Extraction Machine)’라고 정의한다. AI는 인간의 지식·감정·창의성·노동을 흡수해 데이터를 만들고, 이를 알고리즘으로 가공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적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이미지 생성, 음악 추천, 자율주행, 챗봇 기능 등은 모두 수많은 인간의 반복 노동 위에 작동한다.

메타의 콘텐츠 검수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케냐의 ‘머시’는 하루 수백 건의 혐오 게시물을 검토하며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리지만, 그녀의 감정은 시스템 안에 고려되지 않는다.

자율주행차 훈련용 데이터를 수작업으로 분류하는 우간다의 ‘애니타’는 하루 10시간 이상 반복 작업을 수행하고도 1.6달러의 일당을 받는다. AI가 예술성을 흉내 낼 수 있는 것도, 성우나 아티스트의 창작물을 무단 수집해 학습에 활용했기 때문이다.

AI는 인간뿐 아니라 행성의 자원도 추출한다. 아이슬란드의 데이터센터에서 일하는 기술자 ‘에이나르’의 이야기를 통해 AI 기술이 막대한 전력과 물을 소비하며 기후 위기에도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또, AI에 투자하는 실리콘밸리 벤처 자본가들의 결정 하나로 수천 명의 하청 노동자 일자리가 바뀌는 현실도 그려진다. 이처럼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특정한 권력 관계와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장치라는 것이 저자들의 주장이다.

책은 ‘디지털 식민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오늘날의 AI 산업이 과거 식민주의 구조를 반복하고 있다고 말한다. 남반구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노동력을 착취해 북반구의 기업들이 이윤을 쌓는 구조. 이것은 알고리즘이 중립적이라는 환상을 깨뜨리는 통찰이다.

그렇지만 이 책은 단순한 고발서에 머물지 않는다. 케냐의 검수 노동자들이 세계 최초로 디지털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영국 아마존 노동자들이 파업을 통해 작업 환경을 바꾸는 사례를 통해 기술을 다시 설계할 수 있다는 희망의 가능성도 제시한다. 알고리즘 설계의 민주적 통제, 플랫폼 노동의 법적 보호, 기술 감시에 대한 시민사회의 권한 강화 등 현실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된다.

이 책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AI 도구들이 어떤 사람들의 노동, 어떤 사회적 조건, 어떤 자원의 희생 위에 있는지 보여준다. 기술이 정말로 인간 중심이 될 수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묻는다. AI의 ‘신비’가 아닌 ‘현실’을 이해하고 싶은 이들에게 선명한 나침반이 될 책이다. /최명진 기자

노동자·어머니·증언자…김성애의 삶을 기억하다

전용호 작가 ‘그리운 5·18투사 김성애·로사리아’ 출간

여성노동운동의 선구자이자 5·18민주항쟁의 증언자로 살다 간 김성애(세례명 로사리아)의 삶을 조명한 책 ‘그리운 5·18투사 김성애·로사리아’(문학들刊)가 출간됐다.

저자는 1980년 5월 투사회보 제작에 참여했던 전용호 작가로,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의 공저자이자 오랜 시간 지역문화운동과 문학 활동을 병행해온 인물이다.

그는 “광주의 역사 속에 묻힌 이름 하나를 통해, 여성들의 투쟁과 연대의 서사를 복원하고 싶었다”고 집필 동기를 밝혔다.

김성애는 1956년 광주에서 태어나 17살에 로케트전기에 입사하며 노동자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다.

1976년 노동조합 부녀부장으로 선출돼 JOC(가톨릭노동청년회) 활동에 나섰고, 민청학련·송백회 등 당대 민주화운동 단체들과도 연대했다. 1980년 5월, 도청 내 취사 인력으로 시민군을 지원하던 그는 계엄군 진입 직후 서울로 피신해 ‘이 로사리아’라는 이름으로 광주의 진실을 알리는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했다. 이후 수녀원에 몸을 숨기며 당국의 추적을 피했고, 정국이 잠잠해진 후 광주로 돌아와 다시 노동운동 현장을 지켰다.

결혼 후에는 서울로 이주해 민주화운동가들과 공동체를 이루며 삶을 이어갔다. 활동의 장소는 바뀌었지만 사회를 바꾸겠다는 신념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러나 1994년 고향을 다녀오던 길, 교통사고로 두 딸과 함께 세상을 떠났다. 짧은 생이었지만 그의 삶은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깊이 새겨졌고, 2014년 국립5·18민주묘지로 이장되며 공동체의 역사 안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 책은 단순한 전기를 넘어 여성의 시선으로 바라본 오월항쟁과 현장 노동운동의 진면목을 담아낸 기록이다.

한편 ‘그리운 5·18투사 김성애·로사리아’ 광주 출판기념회는 오는 4일 오후 4시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서울 행사는 27일 오후 4시 문화공간 온에서 열린다. 행사는 오월민주여성회, 광주민청학련 동지회, 민청련 동지회 등이 주최하고, 5·18기념재단과 비상시국회의가 후원한다. /최명진 기자

새로 나온 책

▲**꽃의 걸음이 고요하다**=박덕은 시·김지우 그림

부처의 삶을 증거하기 위해 그린 만다라는 법을 갖춰 결함이 없는 것을 뜻한다. 김지우 화백의 만다라는 부처의 상징인 연꽃을 다양하게 변용, 철학적 사유를 통해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쉼자리를 내주고 있다. 또한 만다라는 무의식 속의 분노, 억압, 슬픔 등 여러 감정들을 치유하게 한다. 의식이라는 빛과 통합되면서 마음의 평온함을 되찾아 자신의 본성을 되찾게 할 것이다. 여기에 시인이며 문학평론가인 박덕은 교수의 시가 만나 우주의 본질과 인간존재에 대한 사색의 길로 이끈다. /시와사람사·1만6천원

▲**만주에서 길을 묻다**=이진 저자

이 책은 오랜 세월 민주화운동과 지방정치 현장을 살아온 저자 이진이 인생 2막을 준비하며 기록한 역사적 성찰이자 감정의 결실이다. 저자는 만주의 땅을 밟고, 항일무장독립전쟁의 흔적을 따라가며, 우리가 잊고 지낸 영웅들과 그들의 이야기를 되살린다. ‘범도루트’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여정은 단순한 기행이 아니라 피로 지켜낸 민족의 기억을 되찾는 작업이다. 연길감옥의 파옥투쟁, 15만원 쟁취 사건, 창동학교 교사들의 헌신과 같은 장면은 오늘의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또한 이 책은 지방자치 현장에서 느낀 저자의 경험과 함께 일상 속 놓치기 쉬운 민주주의의 가치를 돌아보게 한다. /북랩·1만8천원

▲**질문의 격**=유선경 저자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질문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도 우리에게 ‘질문하기’에 대해 가르쳐주지 않았다. 작가는 문장에 ‘왜’를 넣는다고, 문장 끝에 물음표를 매달아 놓는다고 다 질문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또 질문에는 분명히 옳은 방식과 잘못된 방식이 존재한다고 강조한다. 작가는 자신만의 질문하기 노하우들을 담아 ‘옳은 방식으로 질문 문장 만드는 법’을 구체적으로 제안한다. 뿐만 아니라 관점을 전환시키고 생각을 넓히는 질문법, AI 시대에 꼭 필요한 새로운 질문법 등 다양한 질문법을 소개한다. /앤의서재·1만7천800원

▲**밤을 산책하는 개**=유르가 빌레 글, 발렌티나 체르냐우스카이테 사진, 서진석 옮김

‘한밤중 나의 반려인을 깨워 산책하러 가는 길’. 이 책은 개인주의가 일상화된 시대에 외롭고 상처 입는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여주는 동시에 종의 차이를 뛰어넘어 친구와 가족이 필요한 이유를 이야기하는 그림책이다. 어두운 밤이면 환한 낮으로부터 소외된 이들이 몰려나오지만, 그들은 결코 서로에게 달라지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보통과 다른 존재라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귀 기울여주기, 이것이야말로 밤을 산책하는 이들이 터득한 지혜인지도 모른다. /바람북스·1만7천800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 구독QR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국

중앙지국 222-8171	상무지국 453-2554	유동지국 222-8171	오치지국 261-9461
산수지국 224-4188	광천지국 374-2120	운암지국 529-3548	문흥지국 261-9462
학운지국 673-6836	진월지국 676-2726	용봉지국 261-1503	일곡지국 573-3200
화정지국 372-9140	봉선지국 673-6836	신가지국 954-1420	첨단지국 971-7374
금호지국 376-7153	백운지국 673-0123	양산지국 574-3745	치평지국 371-9584
풍암지국 603-0311	두암지국 266-1920	하남지국 951-9954	수완지국 955-0451
노대지국 674-3581	농성지국 362-4102	운남지국 952-1687	광산지사 944-0993

지방 지사

목포지사 061)270-8689	나주지사 061)335-0005	보성지사 061)852-6644	무안지사 061)453-3645
동목포지사 061)278-0740	광양지사 061)793-6800	화순지사 061)373-7795	함평지사 061)322-0882
남목포지사 061)245-3797	구례지사 061)782-4696	장흥지사 061)863-6800	영광지사 061)353-5133
신안지사 061)980-8300	담양지사 061)383-5566	강진지사 061)432-8899	장성지사 061)394-3636
순천지사 061)746-1600	곡성지사 061)362-5746	해남지사 061)535-5849	완도지사 061)555-0134
여수지사 061)651-6433	고흥지사 061)832-6290	영암지사 061)473-7151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